

한진중 사태 한나라 내부서도 비판

김형오 “사주 부도덕성 원인인데 정부는 미온적”

孫 부산행 과잉진압 자제 촉구·민노당 단식농성

한진중공업 집단 해고 사태에 대한 논란이 정지권 전만으로 확산하고 있다.

14일 제1야당인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부산으로 내려가 한진중공업을 방문했으며 진보신당에 이어 민주노동당 지도부도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당 손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으로 내려가 송정동 소재 중소기업인 광명인크와 당감동 당감시장, 초량동 부산저축은행 본점을 잇따라 방문, 민생행보를 한 뒤 오후 한진중공업을 찾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재용 사장과

채길용 노조지회장 등 노사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고공 크레인 위에서 190일째 농성 중인 김진숙 민주노동당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과 전화통화를 통해 건강상태 등을 확인했다.

손 대표는 또 사태 해결을 위한 회사 측의 배려와 노사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오는 주말 예고된 3차 ‘희망버스’ 행사에 대해 경찰이 과잉진압하지 않도록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담에서도 손 대표는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과 공권력 투입 차단을 요청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도 전날 진보신

당 심상정·노회찬 상임고문에 이어 이날부터 무기한 릴레이 농성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민주당·민노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등 야 4당은 전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또 경찰이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2차 희망의 버스’ 부산 집회를 물리력을 동원해 진압한 데 대해 “인권 없는 공권력은 폭력”이라며 “조현오 경찰청장과 서천호 부산경찰청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한진중공업 사태’ 청문회를 개최했으나 주요 증인의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정부·여당과

사측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홍준표 대표가 지난 6일 “사용자 측에서 양보를 해야 한다”며 조 회장 등 경영진 비판한 데 이어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13일 “한진중공업 사태의 근본 원인이 사주의 부도덕성과 방만한 경영, 독단적인 해고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가 미온적인 이유가 무엇이나고”고 따졌다.

김 전 의장은 나아가 “역수 같은 장대비 속에서도 최대 1만여명이 모였다고 한다. 희망버스라는 수단을 타고 전국에서 몰려든 시위대가 모두 정권타도에 공조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정권이 싫어 몰려온 것만은 사실”이라며 “보수정권의 위기가 한진(중공업)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당은 당직배분 문제로 매일 같이 퇴각태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독도비행 대한항공 이용 말라”

日외무성 지시...정부 철회 촉구

외교갈등 비화 조짐

정부는 14일 일본 외무성이 대한항공의 독도 시험비행에 반발해 해당 항공사의 이용을 자제토록 한데 대해 유감표명과 함께 엄중한 항의의사를 전달하고 관련 조치를 즉각 철회하도록 촉구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16일 에어버스 380 항공기의 첫 운항에 앞서 기자단과 함께 독도 상공을 시험 비행했으며, 이에 주한 일본대사관측은 11일 오후 대한항공 본사를 방문해 항의하고 오는 18일부터 한달간 외무성 직원의 대한항공 공무탑승을 자제하도록 통보했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대한항공 탑승을 자제토록 한 것은 사실상 우리 민간기업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제재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현재의 양국관계에 비취볼 때 이번 조치는 실망스럽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일본 정부에 대해 이번 조치를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일본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그 결과를 지켜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외교통상부 장원삼 동북아국장은 오는 17일 방한하는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에게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측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영토주권 수호 차원에서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우리측의 철회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 이번 사건이 양국 간 외교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7월말 또는 8월 초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독도문제를 둘러싸고 양국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될 것으로 점쳐진다.

/연합뉴스



대한항공 A380서 바라본 독도

일본 외무성이 대한항공의 독도 시험비행에 반발해 외무성 공무원들에게 해당 항공사의 이용을 자제토록 지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 조치를 즉각 철회하도록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에어버스 380 항공기의 시험비행 당시 독도 상공을 지나는 모습.

/연합뉴스

정가 라운지

장병완 소통정치 실현 남구 민생 탐방

“국방부, 지자체 동의없이 부대 이전 안해”

민주당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이 7월 국회 비회기 기간을 활용, 광주 남구지역 민생 탐방에 나섰다.

민주당 남구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장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대천동을 시작으로 각 동을 순회하며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보고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장 의원은 이번 민생 탐방을 통해 지역 상황을 더 면밀히 살피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의 지역민들과 서로 격의 없는 대화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또 지역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진정한 소통정치를 실현할 방침이다.

장 의원은 형식적인 기관 방문 등을 삼가고 동행 인원을 최소화하는 한편 차량이 아닌 직접 두 발로 남구 지역 구석구석을 찾기로 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14일 광주시가 광동 사격장과 동백 훈련장을 장성 영광 등지로 이전하려는 것과 관련, “장성이나 영광이 동의하지 않으면 부대를 이전하지 않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방부 김인호 군사시설기획관으로부터 “애초 국방부는 광주시가 해당 지자체(장성·영광 등)와 원만히 합의하고 모든 민원을 해결한다는 전제 아래 그 부대의 이전에 동의했으나 해당 지자체와 합의되지도 않고 민원만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부대 이전을 할 생각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김 기획관이 “애초 광주시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위해 광동 사격장과 동백 훈련장의 이전을 맹렬히 서둘렀으나 그때도 국방부는 광주시가 해당 지자체와 원만히 합의하고 모든 민원을 해결한다는 전제를 붙였었다”는 말을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주승용 ‘중증의상 환자’ 법안 제출

민주당 주승용 의원(여수)은 13일 총상·교통사고·추락 등으로 인한 중증의상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중증의상환자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중증의상센터를 설립하고, 국가가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주 의원은 “총상을 입은 환자의 적정 처치를 해야 하는 시간은 1시간인데, 최근 해병대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한 박모 상병은 사건 3시간 만에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됐다”며 “우리 군의 응급의료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윤태명 ‘시장·군수·구청장회의’ 참석

윤태명 동구청장은 15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에 참석한다.

유헌장을 비롯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은 민선5기 제2차년도를 이끌어갈 공동회장단을 선임하는 한편, 행정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정부의 애로사항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다.



/양수현기자 yang@

전남 사립학교 법정 전입금 납부 저조

116억중 고작 19억 납부

전남지역 대부분의 사립학교재단이 법으로 정해진 전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남도의회에서 재확인됐다.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4일 공개한 ‘2010 회계연도 전남도 교육청 결산감사의견서’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 사립학교재단은 지난해 내야할 법정 부담 전입금(116억341만4000원) 중 16.4%인 19억623만3000원만 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6억9718만1000원에 이르는 전입금은 미납된 상태로 법정 부담 전입금 미납이 보편화되고 있는 셈이다.

법정 부담 전입금은 법인이 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한 연금, 건강보험료, 학교 운영비·시설 개선 등에 쓰기 위

해 의무적으로 학교 회계에 내야 하는 돈으로, 관련법이 정한 최소한의 부담금이다. 수익을 기본 재산의 수익성이 하락하면서 납입 실적이 저조하다는 게 도의회측 분석이다. 학교별 법정 전입금 납입률의 경우 도내 초등학교가 100% 납부한 반면, 중학교는 19.3%, 고등학교는 11.1%만 납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교의 법정 부담 전입금 납입률은 4.4%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는 포스코교육재단과 여도학원만이 지난 2009년~2010년 2년간 법정 전입금을 100% 납입했다. 포스코 재단은 광양제철초·제철남초·제철중·제철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도학원은 여도초·중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호남기독교학원의 지난해 순천

매산중에 대한 법정전입금 납입률은 0.6%에 불과해 도의회 조사 대상 학교 중 가장 저조했다. 이외 신명학원(목포 성신고 1.8%), 호남기독교학원(목포 정명여중 1.7%), 신안학원(전남예솔고 1.6%), 호남기독교학원(순천매산여고 1.6%), 금성학원(나주공고 1.6%), 의신학원(의신중 1.5%), 삼광학원(발교고 1.4%), 천성학원(여수중양여중 1.1%), 천성학원(여수중앙여고 1.0%) 등의 납입률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성휘(민·목포 1) 의원은 “보편화된 법정 부담 전입금 납입률을 높이기 위해 우선 재단의 수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며 “이후 전입금 납입 실적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아이엘리시아 검색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대·소모임 가능한 500석 완비!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의 다양한 룸구성으로 쾌적하고 아늑하게 모시겠습니다.

평 일	영 업 시 간	성 인 (중학생이상)	인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15:30	25,000원	12,000원	8,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토·일 공휴일	영 업 시 간	성 인 (중학생이상)	인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15:3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

2010 大韓民國 신지식인 대상 수상

오리요리 신지식인 박만순의 상차림 코스요리 등

월드덕 추천요리

약오리 배숙

향암육수 샤브샤브

효소 월드덕 찜

한방오리구이

눈.코.입을 동시에 즐겁게 하는 즉석 불꽃구이

수상배경 2010. Korea Food Expo.COEX **쉐프의 상차림 월드덕 브랜드 요리출품**

건강에 좋은 백초, 솔순 **“발효 효소”** 상시준비

단체모임환영

별미오리탕 6,000원

天下第一 표고 버섯탕 10,000원

제철 야채전골(4인기준) 48,000원

점심특선

봉선동 **월드덕** 많이많이 사랑해주세요! 062)671-2177,1177

•광주1등맛집 •다담회 한국맛집 •(주)외식공간 오리요리 최고맛집 •우리은행 우리나라우리명가 •광주은행 소호명가